

# 라틴아메리카 독립 시기와 여성의 역할\*

이 성 훈  
(서울대학교)

## I. 들어가면서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시기와 국가 형성기를 다루는 ‘역사’는 시몬 볼리바르나 산 마르틴 등의 익숙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간과했다.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역사 기술은 독립과 이후 국가 형성기 동안 현실에 참여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투쟁과 헌신을 주변화하고 망각하고 있다. 또한 식민적 유산을 비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젠더적 관점이 독립과 국가 형성기에서 간과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에서 남성 중심적인 태도가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꼬리요 남성에 비해 부차적인 혹은 보조적인 역할로 한정되었던 독립시기 여성들의 활동과 이 여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독립과 국가 형성기를 몇몇 꼬리요 남성을 중심으로 사유하고 있는 우리의 시각에 변화를 가져오고, 역사 속의 여성들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간 라틴아메리카 여성에 대한 연구는 여성 정치 지도자들이나 예술 분야

---

\* 이 연구는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던 여성들에 대해 주목하면서 연구의 대상을 주로 20세기에 두고 있다. 독립과 국가 형성기 이후로 여성의 역할이 역사에서 간과되면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이에 대한 반성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독립과 국가 형성기에서 여성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이론적인 태도들 역시 여성들의 역할을 다소간 수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도리스 쉘머(Doris Sommer)가 ‘국가형성 문학(Foundational fiction)’이라는 개념을 통해 보여고 있는 것처럼, 독립이후 국가 형성기 문학에서 당대 여성들을 대상화하고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남녀 주인공들의 사랑이라는 서사구조에 주목하고 있는 그의 연구 방법론은 독립 이후 국가 형성의 주된 이데올로기인 내셔널리즘을 사랑과 연관시키고 있다. 사랑이라는 기제를 통해 다양한 인종 집단과 사회 계층들 사이에 표현된 욕망과 권력의 동학을 국가 형성과 관련된 모티브로 설명해 내고 있다. 19세기 라틴아메리카 소설에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많은 부분은 은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작품 속의 주인공들을 특정 지역, 인종, 정당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해하고 이들 사이의 사랑을 통해 국가 형성의 과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각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들 사이의 성적인 결합이나 결혼이 특정한 이익들을 국가적 정체성으로 묶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국가 형성 과정에서 사랑이나 결혼 등 여성과 남성의 결합에 주목하지만, 여기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역할들은 수동적이고 대상적인 위치로 한정되고 있다. 독립 이후 시기 여성들에 주목했던 도리스 쉘머의 관점 역시 여성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국가의 형성을 남성주의적인 정복과 자연스럽게 동질화하면서 여성을 주변화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독립이후 국가 형성기를 젠더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은 국가 형성과 국가 정체성에 내재한 남성중심적 관점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 시기 여성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처럼 여성들이 라틴아메리카 독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과 그들이 수행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다. 오랜 시기 동안 이 시기와 관련한 여성들에 대한 정보는 전쟁 시기의 예외적인 여성 영웅들에 대한 언급들이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독립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

여했지만, 이들의 존재는 잊혀지고 이상화된 예외적인 여성들만이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다수 여성들은 독립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무관심한 비역사적인 주체로 자리 잡게 된다. 독립시기 여성 영웅들을 이상화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는 20세기 후반부터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영웅적인 여성이 아니라 여성 대중들의 다양한 정치 참여와 여성 개인들의 구체적인 삶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즉 예외적인 여성 지도자뿐만 아니라 익명으로 독립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메스티소 여성, 원주민 여성, 흑인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역사 속에서 부각되지 않은 농민 여성들과 원주민 여성들이 스페인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군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했던 노력과 희생은 독립을 위한 투쟁에 있어 매우 유용한 행위였다. 또한, 전쟁기간 동안 남성들이 떠난 곳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고 식솔을 건사하는 역할 또한 여성들이 감당해야 했던 역할이었다. 이러한 역할들은 남성-영웅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가들이 간과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여성 대중들을 독립과 이후 역사에서 배제하면서 남성들은 가부장제적인 지배 체제를 계속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런 비판은 1990년대 이후 이 시기를 젠더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다양한 시도로 이어진다.

이 글에서는 먼저, 독립 시기 여성들의 역할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고, 전투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여성 인물을 통해 볼리바르와 산 마르틴으로 기억되는 독립 전쟁 시기를 보다 폭넓게 조망해보고자 한다. 이 시기의 ‘여성화’를 통해 그간 간과되어왔던 또 다른 역사적 주체들을 복원하고, 라틴아메리카 독립 시기와 여성의 역할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 II. 라틴아메리카 독립과 여성

1804년 아이티 혁명부터 시작된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은 대규모로 진행된 반식민주의 운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의 반식민주의 독립운동은 사회혁명으로 전화하지 못했고 독립이라는 정치적 과제만을 달성

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혁명에서 보듯이 유럽에서 민주주의 혁명은 사회 및 경제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라틴아메리카에서 반식민주의 독립 운동은 정치적 독립이라는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식민 사회의 유산인 계층적이고 인종적인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라틴아메리카 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던 대외 의존적인 성격과 1차 상품 위주의 경제구조와도 단절하지 못했다. 즉, 지배 세력이 교체되기는 했지만 사회·경제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한 불완전한 독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종속적인 수출경제를 유지했고, 식민시기의 불평등한 농지 소유 제도를 혁파할 농지개혁도 없었고, 산업화를 추진하지도 못했던 것이다.<sup>1)</sup>

이러한 한계는 여성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거칠게 정의하자면 18세기는 역사적 근대가 시작한 시기로 자유, 평등, 정의라는 근대적 가치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라틴아메리카 독립 운동의 흐름도 이러한 역사적 근대의 흐름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젠더의 관점에서 근대는 성의 차이를 주장하는 전근대적인 논리에 맞서 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담론이 나타나게 된다. 라틴아메리카의 독립이 근대적 가치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데 실패했다면, 여성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즉, 구체적인 삶속에서 여성의 평등이 실현되지 못했고 여성들의 공적 공간과 정치에 대한 참여 역시 제한적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독립 운동과 국가 형성기 여성의 참여에 대한 공식 역사의 망각과 은폐를 이해할 수 있다.<sup>2)</sup>

라틴아메리카에서 독립과 함께 신생 공화국들이 탄생하면서 국가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국가 영웅들의 탄생과 함께 진행된다. 국가는 애국주의와 내셔널리즘을 진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한 인물 상징들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적 통합성을 얻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독립 전쟁에 참여한 끄리오

1) Luis Vitale, *La mitad invisible de la historia latinoamericana : el protagonismo social de la mujer*, Buenos Aires : Sudamericana/Planeta, 1987, [http://www.archivochile.com/Ideas\\_Autores/vitalel/5lvc/05lvcujer0011.pdf](http://www.archivochile.com/Ideas_Autores/vitalel/5lvc/05lvcujer0011.pdf)  
 2) M. Ángeles Vázquez, “Antecedentes históricos: relevancia del papel de la mujer en el proceso emancipador latinoamericano”, [http://cvc.cervantes.es/literatura/mujer\\_independencias/vazquez.htm](http://cvc.cervantes.es/literatura/mujer_independencias/vazquez.htm)

요 남성 지도자들의 이미지가 과장되고 영웅적으로 분장되어 등장하게 되었다. 반면 몇몇 예외적인 여성들이 저항의 상징으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독립 전쟁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던 여성들은 이러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sup>3)</sup>

클레어 브루스터(Claire Brewster)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전쟁도 다른 여타의 전쟁들처럼 남성들이 전장에 나가 싸우고 그 결과 독립을 쟁취한 전쟁으로 인식된다.<sup>4)</sup> 여성이 언급되는 경우는 “독립 전쟁 시기 동안 아내, 여자 형제, 그리고 딸이라는 역할을 통해, 혹은 간호사, 요리사 혹은 위안부로서 군대에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작은 역할을 수행”한 경우라고 평가된다.<sup>5)</sup> 알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 라틴아메리카 사회는 마치스모(machismo)로 대표되는 가부장제적인 사회였다. 여성들이 남성에게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종속된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을 부차적인 존재로 해석하는 이러한 현상은 매우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식민시기 동안 법률적인 제약으로 인해 특히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 상당한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실제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수잔 소콜로우(Susan Socolow)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16세기 스페인과 스페인 식민지 여성들은 다른 유럽 여성들과 달리 비교적 상당한 법률적 권리를 누렸다.<sup>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라틴아메리카 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남성들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보다 지적이고,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데 반해, 여성들은 통상적으로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다.<sup>7)</sup>

이런 흐름과는 차별적으로 라틴아메리카 독립 시기 여성들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여성들을 간호사나 요리사 등 부차적인 역할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이라는 대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3) Ibid.

4) Claire Brewster, “Women and the Spanish-American Wars of Independence: an overview”, *Feminist Review*, 79(2005), p.21.

5) Ibid.

6) Susan Socolow, *The Women of Colonial Latin America*, Cambridge:Cambridge Univ. Press, 2000, p.9. Claire Brewster, *ibid.*, p. 22에서 재인용.

7) Susan Socolow, pp. 178-179. Claire Brewster, *ibid.*

강조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그러나 독립 전쟁에 참여했던 여성들에 대한 기록은 주로 상류 계층, 그것도 도시 끄리오요 여성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런 상황은 도시 출신의 끄리오요 엘리트들이 주로 독립 운동에 기여했던 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상류층 출신 사람들의 행동에 보다 많은 관심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립 전쟁에 참여한 예외적인 여성들의 이야기는 국가의 역사나 기념적인 문학 작품들에 낭만주의적으로 묘사되어 등장한다.

이처럼 독립이후 역사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주로 상류 계층과 연관된 사람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에 참여했다. 상류층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제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군대를 위해 모금을 하거나 군복을 제작하는 등 물질적인 지원을 주로 한 반면, 많은 여성들은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를 치료하거나 요리를 하는 등으로 역할을 했다. 또한 혁명적인 문건들을 제작해 배포하거나, 스파이 역할이나 병사들을 숨겨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에 참여했다.

또한 여성들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많은 경우 가족들 구성원 중 일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 사망, 투옥 당하면서 정치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경우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을 따라서, 또 다른 경우는 순전히 위험을 즐기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다. 물론 여성들은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편에 서서 식민지의 독립을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다.<sup>8)</sup> 이렇듯 남성들이 주로 독립전쟁에서 물리적인 전투에 참여했지만 여성들 또한 남성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여성들의 역할을 수동적인 것으로 한정짓는 것은 여성들의 참여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쟁에 참여한 여성들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에 실린 다음 서한은 독립시기 여성들의 태도와 관련해 주목할 만하다. 이 서한을 쓴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취약함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이유가 되지 못하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 전쟁터에 기꺼이 참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8) Claire Brewster, pp.26-28.

각하께서 여성들의 약함을 고려하여 전장의 어려운 일에서 우리들을 면제하려고 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하께서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우리 무정한 여인들에게 활기를 주고 있으며,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부여된 나약함을 한 쪽으로 밀어내고 강인한 성격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들은 오늘날 조국이 처한 위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국을 구하기 위해 조국이 우리를 호명했고, 조국이 보살펴온 목숨을 바치지 않은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 될 것이다. 각하, 여성은 전쟁의 공포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포 소리는 우리들을 복돋우는 소리에 불과하고, 대포불은 해방을 위한 여성들의 염원에 불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해방은 조국을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산 페르난도로 떠난 병력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기를 원하면서, 우리들을 군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한 곳에 배치해 주시기를 각하께 청합니다.<sup>9)</sup>

다른 한편으로 이 편지는 가부장적인 역사가 오랜 동안 만들어온 여성에 대한 상투성을 여성들이 내면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열등하여 전투에 적합하지 않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sup>1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들이 전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종류의 글이 신문에 실렸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둘러싼 논의가 공적 공간에서 진행될 정도로 독립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의지가 구체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신생 독립국가들은 구체제와의 단절을 모색하기 보다는 지배 집단의 교체만을 선택함으로써, 식민적 유산이 유지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역할 역시 여전히 공적 공간 보다는 가정이

9) «Representación que hace el bello sexo al gobierno de Barinas», *Gazeta de Caracas*, 5 de noviembre de 1811, pp. 3-4. La carta tiene fecha de 18 de octubre 1811. Concepción Bados Ciria, “Feminización de las independencias iberoamericanas”, [http://cvc.cervantes.es/literatura/mujer\\_independencias/bados02.htm](http://cvc.cervantes.es/literatura/mujer_independencias/bados02.htm)에서 재인용.

10) Concepción Bados Ciria, *ibid.*

라는 사적 공간 내에서 아내나 엄마로서 역할에 주로 한정되게 된다. 몇몇 끄리오요 지도자들은 식민적 유산을 혁파하고 사회를 재구성하고 했지만, 이 경우에도 평등은 주로 노예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고 젠더 차원의 평등은 주된 관심이 아니었다. 이처럼 끄리오요 엘리트들이 식민시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차지했던 자리를 차지했고, 백인이 지배하는 가부장제적인 사회 구조는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이들 끄리오요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신생 공화국에서 여성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배제되고 무시되었다.<sup>11)</sup>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달성한 이후 초기에는 독립 전쟁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식민시기와 차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아메리카에서 산 마르틴(San Martin)은 태양 훈장(Orden del Sol, 1821-1825) 제도를 통해 독립 전쟁 시기 독립에 기여했던 사람들을 기렸는데, 첫 번째 모임에 256명의 남성과 112명의 여성들이 포함되었고 이 여성들의 숫자는 곧 180명으로 증가했다.<sup>12)</sup>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 초기에는 여성들 역시 국가에 대한 헌신을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825년 이 제도가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독립시기 여성들의 역할은 간과되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독립 전쟁이라는 사회적 격변이 제도화되면서 신생 독립국에서도 여성에 대한 식민적인 질서가 다시 체제화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독립 전쟁의 대표적인 인물인 시몬 볼리바르가 트루히요(Trujillo) 지방에서 독립 전쟁에 대한 여성들의 기여를 찬양하는 연설은 당대 여성들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카라카스의 승리자들이여, 민중은 당신들의 영웅적인 희생을 받을 만한 계도 온 힘을 합쳐 자유를 위해 싸웠고, 자유를 위해 고통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아름다운 성(역주, 여성)이자, 인간적인 젠더의 섬세함인 우

11) Claire Brewster, ““Amazons or innocents”? Women’s contribution to Latin American independence“, *Gendering Latin American Independence*, Working Paper, p. 1, [http://www.socialsciences.manchester.ac.uk/disciplines/socialanthropology/postgraduate/clacs/documents/Brewster\\_AmazonsorInnocents.pdf](http://www.socialsciences.manchester.ac.uk/disciplines/socialanthropology/postgraduate/clacs/documents/Brewster_AmazonsorInnocents.pdf)

12) Ibid., p.16.

리의 아마존 전사들까지도 비록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산 카를로스의 독재자들에 맞서 싸웠습니다. 스페인의 괴물들과 야수들은(...) 우리 아름다운 여성들의 여성적이고 순수한 가슴에 불경스러운 무기를 내질렀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피를 뿌렸고, 많은 여성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또 그녀들에게 족쇄를 채웠습니다(...) 여성들이여, 그래, 전사들이여, 당신들이 밟고 있는 조국의 여성들은 침략자들에 맞서 싸우고 있고, 적들과 맞서 싸워 이길 영광을 우리들과 다투고 있습니다! (...) 모든 여성들이 이제 여성 전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은 군인이 될 것이고, 모든 군인들은 영웅들이 될 것이다. 생명보다 자유를 원하는 민중들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sup>13)</sup>

볼리바르의 연설은 여성들의 희생을 찬양하고 있지만 또한 여성들에 대한 상투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즉, 끈뭇시운 바도스 시리아(Concepción Bados Ciria)가 지적하고 있듯이 여성들을 “인간적인 젠더의 섬세함(delicias del género humano)”, “아름다운 성(el bello sexo)”, “우리들의 아마존 여전사들(nuestras amazonas)“, “우리들의 아름다운 여성들(nuestras beldades)“ 등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sup>14)</sup> 물론, 볼리바르의 연설이 남성들의 군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소 여성들을 ‘남성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sup>15)</sup> 이렇게 볼리바르가 구사하는 어휘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보다는 언급이 만들어진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즉 독립 군대에게 연설하면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군인들의 보호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호전적인 아마존 여성과 대조되는

13) Concepción Bados Ciria, “El imaginario femenino en las independencias hispanoamericanas”, *Ómnibus*, 5:26(2000), <http://www.omni-bus.com/n26/bados.html>에서 재인용.

14) Concepción Bados Ciria, *ibid.*

15) 볼리바르의 연설에 대해 Rebecca Earle는 볼리바르가 여성들을 역사적 주체가 아니라, “amazons or innocents”로 간주한다고 비판한 반면, Evelyn Cherpak은 그가 이러한 톤을 남성들을 독립군에 끌어들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Claire Brewster, ““Amazons or innocents”? Women’s contribution to Latin American independence“, *ibid.*, p.18.

‘여성의 섬세함’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볼리바르가 여동생인 마리아 안토니아(María Antonia)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조언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이중적인 태도는 당시 꼬리오요 남성들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수많은 여성들이 식민지 사회의 전통적인 젠더 역할이 주는 한계에서 벗어나 독립전쟁에 참여했고, 전쟁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독립 이후와 국가 형성기를 거치면서 그리 변화하지 않았다.<sup>16)</sup>

### III. 여성의 독립 전쟁 참여에 대한 관점의 변화

2010년의 ‘라틴아메리카 독립 200주년(Bicentenario de las Independencias Iberoamericanas)’은 라틴아메리카 시민 사회가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독립이 갖는 의미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특히 독립 전쟁 시기 여성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주목할 만한 이론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이 있었다. 즉, 독립 200주년이라는 계기를 통해 지난 2세기 동안 공식 역사가 간과해온 독립 전쟁 시기 여성들의 참여를 부각하기 시작했다. 콘셉시온 바도스 시리아(Concepción Bados Ciria)는 이 과정을 ‘라틴아메리카 독립의 여성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sup>17)</sup>

이렇게 독립 시기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고 여성 행위자들을 복원하려는 경향을 그녀는 라틴아메리카 독립의 여성화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체계화하고 있다. 그녀는 이 여성화가 주로 젠더 연구의 영향을 받은 여성학자들이 진행한 다양한 연구 기획의 결과들이 결합하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라틴아메리카 독립을 젠더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이전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쟁에 참여했던 여성 중에서 몇몇 여

16) Claire Brewster, ““Amazons or innocents”? Women’s contribution to Latin American independence“, *ibid.*, pp.18-19.

17) Concepción Bados Ciria, “Feminización de las independencias iberoamericanas”, [http://cvc.cervantes.es/literatura/mujer\\_independencias/bados02.htm](http://cvc.cervantes.es/literatura/mujer_independencias/bados02.htm)

성 영웅들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주된 초기 경향이었다. 몇몇 여성을 영웅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관점을 통해 복원하는 작업은 특히 이 시기 여성 영웅들에 대한 자서전적인 글들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및 20세기 초반 쓰인 독립 시기 여성 영웅들을 복원하고 이상화하는 연구와 글들은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와 젠더적 평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보다는 국가에 대한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성을 두드러지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또한 독립과 국가 형성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러한 여성 영웅들에 대한 작품들은 낭만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관점 이외에도, 독립 시기 저명한 남성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녀들을 평가하고 신비화하는 경향도 존재한다.<sup>18)</sup>

식민시기에 존재했던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여성 이미지와 함께, 이처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여성 이미지들을 강조하는 태도는 신생 공화국 시기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을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여성들이 정치나 공적인 역할에 참여하는 것 보다는 엄마와 아내로서 모범적이고 순종적인 역할이 강조되면서, 정치와 공적인 일들은 자연스럽게 남성들의 전유물이 되게 된다. 즉 독립 시기라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여성들이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한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상황이 끝났음으로 이제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9)</sup>

이런 양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 제기된 것은 가시적으로 변화한 것은 1970년대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여성학이 발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경향은 독립시기 여성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독립 시기의 여성 영웅 연구에 대해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애국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시기 여성을 연구하거나 독립시기 여성들의 참여를 여성 영웅을 통해 이해하려는 태도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이 시기 여성들

18) Inés Quintero Montiel, “Mujeres y política en los procesos de independencia. El sexo femenino, señor, no teme los horrores de la guerra”, 2010, pp.1-2, <http://iipdigital.usembassy.gov/st/spanish/article/2010/11/20101118095051x0.6471018.html#ixzz2tTJ1m7W>

19) Ibid., p.3.

의 참여를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앞서 나타났던 여성 영웅에 대한 개인주의적이고 이상화된 시각에서 벗어나, 독립에 기여했던 다양한 방식의 여성들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 방향이 확장된 것이다. 영웅적인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전투에 직접 참여하여 싸웠던 여성 전투원들에 주목하고, 전쟁 시기 동안 여성이 겪어야 했던 일상생활의 변화,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다양한 방식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독립이라는 대의에 참여했던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여성들의 매우 다양한 방식의 참여로 관심이 이동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엘리트 여성들은 독립군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모금, 전투복 지원, 도망자 은신처 제공 등의 역할을 했다면, 민중 계급의 여성들은 직접 군대에 참여하여 요리를 하거나 간호사 역할, 혹은 민간 영역에서 스파이나 통신원 역할을 하는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 시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회 계층 및 종족의 여성들이 자주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과정에 참여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변화에 참여하고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한두 명의 여성들이 아니라 집단으로서 여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역사는 주로 예외적인 몇몇 여성들만을 기록해 왔다. 그러나 여성들은 전투원, 스파이, 조정자, 간호사, 후방 지원 담당자 등으로 전쟁에 참여했고, 비록 공식 역사가 상류 계층 출신의 저명한 여성들만을 기록하고 있을지라도 민중 계층 여성들의 역할은 중요한 요소였다. 원주민 여성, 흑인 여성, 메스티소 여성들도 남성들과 함께 독립 전쟁의 승리에 기여했다.<sup>20)</sup>

이렇게 독립 전쟁 시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이들 여성 참여자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 기록되거나 역사에 편입되지도 못했다. 역사적 망각은 한편으로는 이들이 수행했던 종속적인 역할과 당대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관련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역사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가난한 민중 여성으로 구성된 이들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부정과 관련되어 있다. 공식 역사가들은 민중의 투쟁을 누락시켰고 이 투쟁에서 특히 여성들의 투쟁을 누락시켰던 것이다.

20) Ibid., p.4.

이런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젠더 연구를 통해 주로 1970년 대부터 공식적인 역사에 대한 대안적인 목소리들이 나타났다. 젠더의 관점을 가지고 공식적인 역사가 간과했던 수많은 문서와 문헌들을 검토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독립 과정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역할을 드러내고자 했다. 젠더, 인종, 사회 계급과 같은 조건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에 의해 부가된 제약과 통제들을 고려하면서 당대 여성들이 취했던 태도들을 분석했다. 독립시기 여성들에 대한 이상적이고 영웅적인 재현이 아니라, 그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적인 제약을 과감하게 드러내면서 여성들의 역할과 위치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sup>21)</sup>

이런 의미를 연구한 초기 여성 역사연구자들 중 대표적인 사람이 에블린 처팩(Evelyn Cherpak)이다.<sup>22)</sup> 그녀는 1978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구 과반(여주, 여성)에 대한 이러한 폄하는 이제 용인될 수 없다. 여성들은 이 갈등(여주, 독립 전쟁)에서 수동적인 관람자들이 아니었다. 이 갈등에 참여했고, 개인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이 갈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여성들의 기여가 갖는 본질에 대해, 그리고 사회 내 여성들의 위치에서 독립 전쟁이 가져온 효과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초점은 혁명적 시대를 보다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sup>23)</sup>

그녀는 앞서 인용한 바 있는 신문에 실린 서한문 분석을 통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독립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여성들의 역할이 수동적인 태도에 머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변화 속에서 독립 시기 여성을

21) Concepción Bados Ciria, “Feminización de las independencias iberoamericanas”, *ibid.*

22) *Ibid.*

23) Evelyn Cherpak, “La participación de las mujeres en el movimiento de Independencia de la Gran Colombia”, en Asunción Lavrin(ed.), *Mujeres latinoamericanas: Perspectivas históricas*, Greenwood Press: Westport, Connecticut and London, 1978, p. 278, Concepción Bados Ciria, *ibid.*에서 재인용.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 그룹이 만들어 지게 된다. 이런 성과들 중에서 주로 노팅햄(Nottingham) 대학과 맨체스터(Manchester) 대학의 공동 연구 그룹인 “라틴아메리카 독립의 젠더화: 여성의 정치 문화 그리고 젠더 구성 1790-1850”(Gendering Latin American Independence: Women’s political culture, and the Construction of Gender 1790-1850)이 대표적이다.<sup>24)</sup> 이들은 그간 연구 성과를 모아 2006년 『남아메리카의 독립: 젠더, 정치, 텍스트 1790-1850(South American Independence: Gender, Politics, Text 1790-1850)』을 출간하였고, 이 텍스트는 독립 시기 여성 연구의 고전적인 연구들을 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직은 <라틴아메리카 역사 내 여성 연구 센터( Centro de Estudios La Mujer en la Historia de América Latina, CEMHAL)이다.<sup>25)</sup> 1997년 8월 27-29일 <라틴아메리카 역사에서의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1회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연구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8년 11월 사라 베아트리스 구아르디아(Sara Beatriz Guardia)의 주도로 이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 연구조직의 목표는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젠더적인 관점에서 역사 연구를 진작하고 라틴아메리카 여성사에 대한 간학문적인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1970년대 이후 젠더 연구의 관점에서 시작한 라틴아메리카 여성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수동적인 역할로 한정되어 상징적 혹은 일화적인 자료로만 등장하던 역사 속에서의 여성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재고찰하고자 했다. 공식 역사는 남성적인 가치에 의해 해석되고 남성적인 행위들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인 것이다. 1970년대 이후의 독립시기 역사에 대한 ‘여성화’는 CEMHAL을 통해 보다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들은 오늘날 여성사라고 명명된 여성들의 과거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의 역사의 다른 측면을 발견하고 분석하려는 개념적인 도구로 이해해

2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http://www.genderlatam.org.uk/genderlatam/index.aspx>

2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http://www.cemhal.org/cemhal.html>

야 하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소가 조직한 2009년 10월에 조직한 <200주년 위원회: 라틴아메리카의 여성과 독립 Comisión del bicentenario. Mujer e Independencia en América Latina>는 라틴아메리카 독립과 여성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각종 학술행사와 연구 성과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관이다. 라틴아메리카 독립을 위해 싸웠던 여성들의 적극적인 존재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기관은 젠더적인 관점에서 독립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국민 국가들의 토대가 형성되던 시기에 대한 간학문적인 연구를 진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 주제를 정하고 14개의 연구그룹을 결성했다.<sup>26)</sup>

이렇게 라틴아메리카 독립 시기의 여성의 역할을 젠더적인 관점에서 읽어내야 한다는 흐름은 CEMHAL이 개최한 <라틴아메리카 독립 과정의 여성>이라는 제 1회 국제 학술대회에서 채택된 2013년 8월의 <리마 선언>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들은 20세기 말 21세기 초 여성 연구는 여성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 신장과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된 문화,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해 인식의 영역에서 중요성을 얻었다고 파악한다. 또한 독립 투쟁 200주년은 독립시기 여성들의 참여에 대한 재인식을 추동했고, 균형있고 평등한 민주주의의 성취와 강화를 위해 여성들의 역사를 새롭게 사고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독립시기 여성들에 대한 역사는 복잡적이고 다양한 역사적 주체로서 여성들을 연구하고 이론화하는 과정 속에서 인식을 심화 확장하기 위한 비판적 성찰의 순간에 놓여 있다고 자신들의 연구가 갖고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역사적 주체이자

26) <http://www.cemhal.org/cemhal.html> 각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독립시기의 여성들: 전사와 역사적 전개, 2. 원주민 여성과 아프리카계 여성들의 저항: 노예와 자유인, 3. 국민 국가의 형성과 건설과정, 4. 배제/포함 그리고 저항: 시민과 젠더의 구성, 5. 라틴아메리카 역사 서술에 있어서 젠더와 독립, 6. 일상생활, 사회성의 공간, 멘탈리티와 여론, 7. 독립 시기 언론 그리고 상투성의 탄생, 8. 그림과 영화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와 재현, 9. 이 시기 여성이 본 여성: 일기, 편지, 기타 기록, 10. 독립시기 여성과 교육, 11. 19, 20세기 문학 속의 여성의 이미지, 12. 여성 리더, 활동가, 작가들 사이에 범아메리카적인 관계들, 13. 독립 투쟁 시기 여성에 대한 인정과 망각, 14. 독립 200주년의 여성들의 역사 서술.

행위자로서 여성의 복원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역사적 시기에서 주체로서 여성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제도 차원에서 여성과 젠더의 역사에 관한 연구를 발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sup>27)</sup>

이처럼 라틴아메리카 독립 시기의 여성에 대한 연구는 초기 시대와 달리 젠더적인 관점을 거치면서 변화해 오고 있는 것이다. 젠더적인 태도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 독립 시기 영웅의 이상화와 관련된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생산물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공통적이다. 불과 수 십 년까지도 라틴아메리카 사회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독립 전쟁과 국가 형성이라는 지난한 과정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역할은 단편적으로 드러나거나 이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르러서야 젠더 연구와 함께 공식 역사에 대한 대안적인 목소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라틴아메리카에서 독립 전쟁과 관련한 여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여성 이미지는 식민 시기부터 통용되어 온 것으로, 이러한 ‘여성에 대한 상상계(imaginario femenino)’가 변모하고 있다.<sup>28)</sup> 최근 몇 십 년 동안 여성 자신들에 의해 만들어진 텍스트들의 복구와 출판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 안에서 공적 공간과 정치에 개입하고자 하는 라틴아메리카 여성들의 의지가 구체화되고 있다. 즉, 독립시기 여성들의 참여를 복원하는 행위는 과거의 복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VI. 여성 전사와 역사: 마누엘라 사엔스(Manuela Sáenz)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인물이 바로 볼리바르의 연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가장 많이 알려진 여성 중의 한명이 에콰도르 출신인 마누엘라 사엔스이다.<sup>29)</sup> 그녀는 볼리바르와의 관계를 통해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1822년

27) <http://www.mujeresbicentenario.com/congreso.html>

28) Concepción Bados Ciria, “El imaginario femenino en las independencias hispanoamericanas”, *ibid.*

29) 마누엘라 사엔스의 간략한 일대기는 주로 Consuelo Triviño Anzola, “Manuela

볼리바르와 만나 그의 연인이 되기 전에 이미 독립을 위한 싸움에 헌신하고 있었다. 스페인인 아버지와 끄리오요 여성 사이의 혼외자로 태어난 그녀는 아버지의 권유로 영국인 의사인 남편 제임스 쏰(John Thorne)과 어려서 결혼했다. 1822년 볼리바르와 만난 이후 그의 연인이 되어 8년간 볼리바르와 함께 스페인군에 맞서 싸웠고, 산 마르틴에 의해 다른 112명의 여성들과 함께 “태양의 기사(Caballeresa del Sol)”라는 칭호를 받았다. 아야꾸쵸(Ayacucho) 전투에서 산 마르틴과 함께 싸웠고 볼리바르는 그녀의 강인한 개성과 무기와 말을 다루는 능력에 반했다고 한다. 산 마르틴이 이 전투 이후에 볼리바르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녀의 용맹함이 잘 나타나 있다.

그녀는 처음부터 우사레스(Húsares) 부대와 이후에는 벤세도레스(Vencedores) 부대에 참여하여, 식량보급을 조직하고,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적들의 총탄 속에서 과감한 공격으로 싸우면서, 부상자들을 구출하였 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특히 (...) 용기가 두드러졌습니다. 마누엘라 부인은 그녀의 활동으로 인해 특별한 공적을 받을 만합니다. 따라서 그녀에게 콜롬비아 군의 대령 직을 하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sup>30)</sup>

마누엘라 사엔스는 지휘관 옷을 입고 직접 병력을 이끌면서 다양한 전투에 참여했다. 1828년 볼리바르에 대한 습격이 있을 때에는 칼을 들고 공격자들과 맞서 볼리바르가 위기에 벗어나도록 도와주었다. 이 때 이후로 그녀는 ‘해방자를 해방시킨 여자(Libertadora del Libertador)’라는 명칭으로 불렸고 볼리바르 반대파들에 대해 맞서 싸웠다. 이런 볼리바르와의 관계로 인해 그녀는 박해와 투옥, 그리고 망명을 겪어야 했다. 마누엘라 사엔스는 볼리바르의 죽음 이후에도 보고타로 가서 자신에 대한 공격에 맞서 싸웠다. 그녀를 비방하는 게시물들이 거리마다 붙었고 자신과 볼리바르를 상징하는 두 인형을 불태울 정도로 자신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상황이었지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La Torre de Babel>을 통해 정부가 당대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Sáenz, la libertadora del libertador”와 Sara Beatriz Guardia, “Manuela Sáenz en Paita, el último refugio de la libetadora”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30) Consuelo Triviño Anzola, “Manuela Sáenz, la libertadora del libertador”, [http://cvc.cervantes.es/literatura/mujer\\_independencias/trivino01.htm](http://cvc.cervantes.es/literatura/mujer_independencias/trivino01.htm)에서 재인용.

비판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투옥되었고, 1831년 4월 라파엘 우르다네타(Rafael Urdaneta) 장군은 그녀를 콜롬비아에서 추방했다. 이후, 대통령이 된 프란시스코 산판데르(Francisco de Paula Santander) 장군은 1834년 1월 그녀를 영원히 콜롬비아에서 추방하는 포고문에 서명하게 된다. 볼리바르의 친구였던 영국인 상인 맥스웰 히스롭(Maxwell Hyslop)의 도움으로 자마이카의 킹스턴(Kingston)에서 약 1년간 체류했다. 후안 호세 플로레스(Juan José Flores) 대통령의 사면으로 귀국 허가를 받았지만, 1835년 10월 플로레스 대통령이 정권을 잃게 되면서 마누엘라는 과야quil(Guayaquil)로 가야만 했다. 다시 그녀는 비센테 로카-푸에르테(Vicente Roca-Fuerte) 정부에 의해 그해 10월 추방되었다. 이때 그녀는 페루로 가서 북부 해안의 사막 가운데에 있는 작은 항구도시인 빠이따(Paita)에 자리잡게 된다. 1856년 11월 23일까지 이곳에서 시종이었던 요나(Jonás)와 함께 머물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1856년 이 항구에 디프테리아 전염병이 돌았고 주민중 상당수가 병에 걸려 죽었다. 11월 23일 이 전염병으로 그녀 역시 사망했고 곧 요나도 사망했다. 그녀의 시신은 곧 전염을 막기 위해 화장되었고, 집과 세간들도 불태워졌다. 이처럼 그녀는 페루의 빠이따(Paita)라는 작은 항구에서 자신의 슬픔과 처지를 상징하는 검은 색 옷을 입고 약 30년을 망각 속에서 살아야 했고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듯 마누엘라 사엔스가 보여준 삶의 여정은 식민시기 여성의 위치와 독립이후 새로운 질서 하에서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또한 독립 시기 여성을 어떻게 재해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사엔스의 경우처럼 전쟁이 끝나고 권력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가사의 영역으로 한정되었고, 많은 경우 여성들은 망각으로 잊혀졌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이 단순하게 남편을 돕거나 전쟁에 그를 따라가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 독립의 대의를 전파하고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맥락에서 마누엘라 사엔스는 볼리바르와의 사랑으로 아니라, 볼리바르라는 남성 지도자의 부수적인 인물이 아니라 자유로운 국가라는 희망을 위해서 그가 전쟁에서 만든 업적을 통해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다. 볼리바르의 연인들 모두가 마누엘라처럼 뛰어난 업적을 이루지 못했고,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지는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녀가 부도덕하고, 여성적이지 않고, 순정하지 않다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sup>31)</sup> 그러나 살펴 본 것처럼 그녀는 볼리바르의 연인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역사적인 주체로서 전쟁에 참여했고, 독립 이후 국가 형성기 동안 남성 중심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배제된 대표적인 여성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누엘라 사엔스라는 인물을 주체적인 개인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이상화된 여성 개인의 복원이 아니라, 역사 속의 여성을 구체화하고 그들의 역할을 온당하게 해석하는 ‘라틴아메리카 독립의 여성화’라고 할 수 있다.

## VI. 나가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역사는 독립과 신생 공화국의 형성에 있어서 여성들의 존재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매우 수동적이고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을 간주되었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영향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만큼 거대했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성들 역시 자신들의 적극적인 존재를 드러내면서 이런 시대적 사명에 응답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이러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역할은 독립 전쟁과 함께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독립전쟁 이전에도, 몇몇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건들이 존재했다. 1780-81 투팍 아마루(Túpac Amaru) 혁명, 1781-82년 코무네로스(Comuneros) 혁명, 그리고 1797년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구알과 에스파냐(Gual y España) 반란 등이 그것이다.<sup>32)</sup> 이러한 역사 속의 여성들의 기여는 ‘역사’ 속에서 간과되어 왔지만, 20세기 후반 젠더 연구의 문제의식과 함께 복원되고 구체화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31) 최근에 등장한 그녀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화는 1988년 덴질 로메로(Denzil Romero)의 『손 박사의 부인』이라는 소설이다. 스페인에 출판된 이 책은 Pemio La Sonrisa Vertical이라는 상을 받았는데, 그녀를 매우 야심만만하고, 도도하며, 충동적이며, 성적인 욕구가 강한 여자로 그려내고 있다.

32) Catherine Davies, Claire Brewster & Hilary Owen, *South American Independence: Gender, Politics, Text*, Liverpool: Liverpool Univ. Press, reprint edition, 2011. p.133

우리는 독립 시기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역사를 보다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의 반성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 시기를 다루는 연구들에서 끄리오요 여성 이외의 원주민 여성과 아프리카계 여성들의 존재와 목소리는 간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주변화되고 망각된 목소리들을 복원하는 것은 라틴아메리카 독립 시기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고, 라틴아메리카 여성들의 역사에 대한 참여를 보다 통찰력있고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이성훈, “라틴아메리카 국민국가 형성기의 정체성 형성과정 연구 시론”, 『이베로아메리카 연구』, 19(2008), 103-123.
- Bados Ciria, Concepción, “El imaginario femenino en las independencias hispanoamericanas”, *Ómnibus*, 5:26(2000), <http://www.omni-bus.com/n26/bados.html>
- Bados Ciria, Concepción, “Feminización de las independencias iberoamericanas”, [http://cvc.cervantes.es/literatura/mujer\\_independencias/bados02.htm](http://cvc.cervantes.es/literatura/mujer_independencias/bados02.htm)
- Brewster, Claire, ““Amazons or innocents”? Women’s contribution to Latin American independence”, *Gendering Latin American Independence*, Working Paper, [http://www.socialsciences.manchester.ac.uk/disciplines/socialanthropology/postgraduate/clacs/documents/Brewster\\_AmazonsorInnocents.pdf](http://www.socialsciences.manchester.ac.uk/disciplines/socialanthropology/postgraduate/clacs/documents/Brewster_AmazonsorInnocents.pdf)
- Brewster, Claire, “Women and the Spanish-American Wars of Independence: an overview”, *Feminist Review*, 79(2005), 20-35.
- Cherpak, Evelyn, “La participación de las mujeres en el movimiento de Independencia de la Gran Colombia”, en Asunción Lavrin(ed.), *Mujeres latinoamericanas: Perspectivas históricas*, Greenwood Press: Westport,

- Connecticut and London, 1978,
- Davies, Catherine, Claire Brewster & Hilary Owen, *South American Independence: Gender, Politics, Text*, Liverpool: Liverpool Univ. Press, Reprint ed., 2011.
- Duro Montealegre, Rosa María, “Resignificación de las independencias en el marco de la celebración de los bicentenario: una mirada desde la re-existencia cultural de las mujeres indígenas”, [http://cvc.cervantes.es/literatura/mujer\\_independencias/duro.htm](http://cvc.cervantes.es/literatura/mujer_independencias/duro.htm)
- González Eraso, Judith Colombia, “Representaciones de las mujeres en la independencia desde la historiografía colombiana”, *Historelo: Revista de Historia Regional y Local*, 3:5(2011), 169-190.
- Guardia, Sara Beatriz, “Manuela Sáenz en Paita, el último refugio de la libetadora”, <http://www.mujeresbicentenario.com/inbestigacion4.html>
- Higuera, Gladys, “El Rol de la Mujer en la independencia”, *Conferencias*, 13(2010), 263-278
- Quintero Montiel, Inés, “Mujeres y política en los procesos de independencia. El sexo femenino, señor, no teme los horrores de la guerra”, 2010, <http://iipdigital.usembassy.gov/st/spanish/article/2010/11/20101118095051x0.6471018.html#ixzz2tTj1m7W>
- Sánchez Korrol, Virginia, “Women in Nineteenth - and Twentieth- Century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storing Women to History: Teaching Packets for Integrating Women’s History into Courses on Africa, Asia, Latin America, the Caribbean, and the Middle East”, *Organization of American Historians: Bloomington*, 1988.
- Socolow, Susan, *The Women of Colonial Latin America*, Cambridge:Cambridge Univ. Press, 2000
- Triviño Anzola, Consuelo, “Manuela Sáenz, la libertadora del libertador”, [http://cvc.cervantes.es/literatura/mujer\\_independencias/trivino01.html](http://cvc.cervantes.es/literatura/mujer_independencias/trivino01.html)
- Vázquez, M. Ángeles, “Antecedentes históricos: relevancia del papel de la mujer en el proceso emancipador latinoamericano”, [http://cvc.cervantes.es/literatura/mujer\\_independencias/vazquez.htm](http://cvc.cervantes.es/literatura/mujer_independencias/vazquez.htm)
- Vitale, Luis. *La mitad invisible de la historia latinoamericana : el protagonismo social de la mujer*, Buenos Aires : Sudamericana/Planeta, 1987

❖ ABSTRACT

## La época de la independencia de América latina y los roles de las mujeres

Seong hun LEE

La historia sobre la época de la independencia y la formación de las naciones latinoamericanas enfatiza sobre todo los roles de los hombres y esporádicamente de las mujeres. Se han considerado directrices las acciones de algunos criollos de esa época como Simón Bolívar y San Martín. La historiografía masculina-céntrica está ignorando y marginando las luchas y los sacrificios de las mujeres que participaron en la independencia y la formación de las naciones. Por tanto, es preciso realizar una crítica a los procesos que han mantenido la tendencia machista, uno de ellos es porque no se han desatendido concepciones y cosmovisiones sobre el género. En fin, esta tendencia es porque no se ha superado la herencia colonial de manera crítica.

En este contexto, este artículo intenta investigar los cambios sobre los puntos de vista y la manera de ver a las mujeres y sus actividades durante la época de la independencia. Puesto que las mujeres han sido consideradas como objetos que ocupan un espacio secundario en comparación a los roles de los criollos.

Este estudio pretende configurar nuevos puntos de vista para reestructurar nuestro enfoque tradicional sobre la independencia y las formaciones de las naciones latinoamericanas para poner en evidencia los roles de las mujeres en la historia.

---

### Key Words

라틴아메리카, 독립, 국가 형성, 여성, 마누엘라 사엔스

América latina, Independencia, Formación de la nación, Manuela Sáenz

논문접수일: 2014. 01. 25

심사완료일: 2014. 02. 28

게재확정일: 2014. 03. 12